

대한상의 브리프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전략팀 임은정 선임연구원



2017년 7월 24일



편집자주

환경경영, 이제는 선택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기업이 도입해야 하는 경영방식입니다. 이번 호는 글로벌기업들이 환경위기 속에서 기업의 존립을 위해 꾸준히 그리고 치열하게 도입한 환경경영 사례를 소개하고 환경보호와 수익창출을 동시에 달성한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적당한 불편 ‘환경경영’

‘無방부제, 無색소, 無형광, 인체에 무해한..’ 생활용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들이다. 제품을 고를 때 성분표를 꼼꼼하게 들여다 보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유럽에서는 유기농 제품들을 포장 없이 판매하는 ‘포장 제로 마켓’이 들어서고 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장바구니를 직접 챙기거나 구매하는 ‘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 트렌드의 핵심적인 요소로 ‘친환경’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을 고려한 기업활동 ‘환경경영’의 도입 필요성과 선진기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경영 왜 도입해야 할까

글로벌 기업들은 단기적 비용을 감수하고 지속 성장과 장기적인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환경경영이란 국내외로 통용되는 의미나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활동’이라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

급변하는 경영여건은 기업들의 환경경영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IEA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에 '40년까지 약 16조불 규모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촘촘하게 환경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장퇴출 위기에 놓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기업의 환경규제 위반과 비윤리적 행위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투자자들의 저평가로 인해 매출감소,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국들은 환경 규제 수를 늘리고 규제강도 또한 높이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14년)에 따르면 환경관련 TBT¹⁾통보는 '04년 88건에서 '13년 22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1) TBT란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줄임말로 무역기술장벽을 의미한다. 기술규정, 표준 등을 적용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뜻한다. WTO회원국들은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만한 규정을 제·개정 시 관련내용을 WTO에 통보하고 있다.

선진기업들의 환경경영 사례

IT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활용 노력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명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데이터센터 때문인데 세계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²⁾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은 2020년까지 IT분야 전력소비량의 8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겠다는 것이 글로벌 IT기업들의 목표이다.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구글은 '10년부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18억달러 (약 2조원)를 투자하였으며, 에너지자회사와 에너지 연구소도 설립하여 직접 에너지를 생산 판매하는 에너지기업이 되었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연간 8% 수익률을 얻고 있고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있다.

애플은 2015년 미국 내 전 사업장의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미국 외 해외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도 높이고 있다. 최근 애플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해 10억달러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현재 재생에너지 활용률이 96%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100% 활용 목표를 가장 먼저 내건 페이스북도 전력을 모두 풍력발전에서 공급받는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등 목표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IT 기업들의 환경성 평가 순위]

		Final Grade	재생 에너지	천연 가스	석탄	원자력
1		(A)	83%	4%	5%	5%
2	facebook	(A)	67%	7%	15%	9%
3	Google	(A)	56%	14%	15%	10%
4		(C)	50%	17%	27%	5%
5		(B)	43%	12%	16%	15%
6		(B)	32%	23%	31%	10%
7	IBM	(C)	29%	29%	27%	15%
8		(D)	24%	3%	67%	3%
9	Tencent 腾讯	(F)	24%	3%	67%	3%
10	Baidu 百度	(F)	24%	3%	67%	3%

▲ 출처 : 그린피스 'clicking clean' 2017 보고서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IT기업들에 대한 친환경 성적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활용비율 외에도 투명성,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에 대해 평가하고 등급을 매긴다.

제조업의 자원 절약, 친환경제품 개발



환경경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GE의 에코매지네이션³⁾ 전략을 꼽을 수 있다. GE는 2005년 '녹색이 돈이다 (Green is green)'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 청정기술 투자 확대 △ 환경사업 매출증대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 △ 물소비량 절감 △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친환경 사업 부문을 크게 확장하였다.

2) 세계 정보통신업체들이 UNEP(유엔환경계획)의 지원을 받아 결성된 조직

3) 생태를 뜻하는 '에콜로지(Ecology)'의 Eco와 GE의 슬로건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 (Imagination at work)'에서 따온 Imagination의 합성어

GE의 예상보다 친환경 사업 부문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 100억 달러에서 2016년 380억 달러까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생활용품 업체 피앤지는 △ 자원절약 제품 제조 △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포장재 감소’, ‘제품 사용단계의 자원, 에너지 절약’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피앤지의 찬물세탁세제와, 행굼 횟수를 반으로 줄인 섬유유연제가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이 부족한 멕시코의 저소득층 가정주부들이 세탁물을 행굼 때 물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섬유유연제 사용을 꺼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행굼횟수를 반으로 줄인 섬유유연제를 개발했다. 해당 섬유유연제의 매출은 출시 6개월 만에 62% 증가하였다.

세계 금융기관의 행동협약, 적도원칙

앞으로 기업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도 환경성을 평가 받을 수 있다.

세계 금융기관들은 ‘적도원칙’이라는 자발적인 행동협약에 따라 개발프로젝트 자금을 대출해줄 때 환경 사회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다. 개도국에서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환경파괴나 지역주민의 인권 침해 문제로 대출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는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는 적도원칙이 선행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고 한다.⁴⁾ 적도 원칙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27개국에 걸쳐 72개 회사로 국제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서 70%를 웃도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례로 본 환경경영 전략

이상에서 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기후변화, 물부족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친환경 제품과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하여 환경적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한 것이다.

환경경영은 단순히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이나 환경보호활동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규제·시장 리스크 관리, 비용 절감, 장기적인 수익을 위해 필요하다.

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전략 수립에서부터 사업장 관리, 제품출시, 폐기단계까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환경경영 전략이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 🌱

4) 스마트그린컴퍼니 (삼성안전환경연구소 '12) 발체

국내·외 경제지표

2017년 7월 24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4	2015	IMF		OECD	
			2016 ^(E)	2017 ^(E)	2016 ^(E)	2017 ^(E)
한국	3.3	2.6	2.8	2.7	2.8	2.6
세계	3.4	3.2	2.4	2.9	2.9	3.3
미국	2.4	2.6	1.6	2.3	1.5	2.3
중국	7.3	6.9	6.7	6.6	6.7	6.4
일본	0.0	0.5	1.0	1.3	0.8	1.0
EU	1.1	2.0	1.7	1.7	1.7	1.6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원/달러	1,131	1,161	1,185	1,145	1,135	1,133	1,125	1,130
원/엔	934	1,068	1,030	1,013	1,004	1,029	1,003	1,019
원/위안	180.1	174.4	172.4	167.2	164.8	164.5	163.5	166.1
원/유로	1,255	1,283	1,258	1,219	1,213	1,213	1,245	1,269
유가(Dubai)	32.2	53.8	53.2	55.2	50.8	50.2	50.1	46.5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산업생산	1.9	3.0	3.4	4.2	4.1	3.5	2.4	-
소매판매	4.1	4.3	4.1	0.5	1.2	2.6	1.6	-
설비투자	6.9	-1.3	10.3	19.5	23.4	14.3	19.5	-
수출	-8.0	-5.9	11.1	20.2	13.1	23.8	13.3	13.7
수입	-16.9	-6.9	19.8	23.9	27.7	17.3	19.1	18.0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